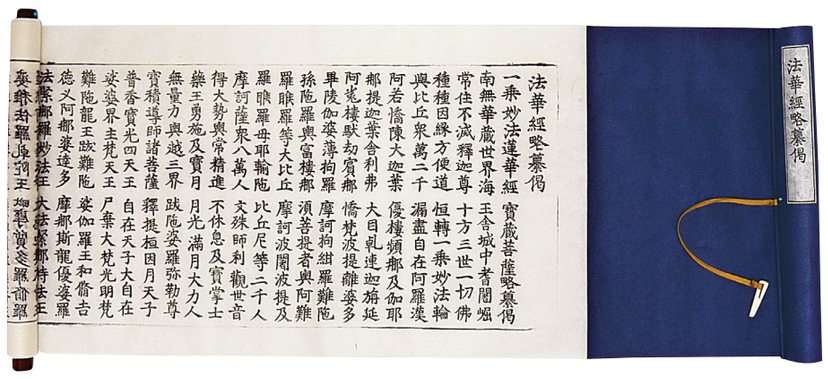
판각 장인이 재현한 대장경 복각 책판

안준영 초대전
'초조 · 재조대장경 복각 책판 전시회'
해인사성보博 4월 6일~6월 4일

초조대장경 · 재조대장경 등 40여 점
40여 년간 전통 판각기법 등 재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 목판.



법화경 약찬게 권자본

해인사(주지 혜일) 성보박물관은 4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판각 장인 안준영을 초대해 '초조 · 재조대장경 복각 책판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을 간직한 해인사에서 국난 극복의 상징이자 법보신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가치와 우수성을 전하면서, 올곧게 외길을 걸어온 장인의 정신을 시대정신과 접목하고자 마련됐다.

판각된 복원 · 복각경판과 함께 경판의 권자본과 절첩본으로 이어지는 전시는 고려시대 목판인쇄술의 우수성과 함께 그려낸 대장경의 제작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된다. 또한 칼끝으로 그려낸 불교회화의 정수인 변상도를 통해 안준영 판각 장인의 뛰어난 판각 기량을 가늠할 수 있다.

안준영은 40여 년간 전통 판각기법과 판각문화 재현이라는 외길을 걸어왔으며 현재 대장경문화학교 대표, 이산책판 박물관 관장, 완판본 문화관 관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안준영 장인이 이룩한 것 중 일부인 책판 40여 종으로 초조대장경, 재조대장경, 변상도, 부모은중경, 다라니 등으로 분류해 다양한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작품으로는 초조대장경(첨품묘법연화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재조대장경(가섭부불열반경, 성지세다라니경, 대반야경, 아비달마순정론, 아비달마대비바사론), 변상도(금강경변상도, 화엄경변상도, 수능엄변상도, 아미타경변상도), 부모은중경, 다라니(무구정광대다라니, 신묘장구대다라니, 관세음보살수진언)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은 고려 고종(1237~1248) 때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것을 말한다. 1962년 국보로 지정됐으며, 해인사 장경판전이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해인사 고려대장경판과 제(諸)경판이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현재 해인사가 소장하고 있는 이 대장경판은 고려시대 판각됐기 때문에 '고려대장경판'이라고 하며, 경판이 8만 1258매에 달하며, 8만 4천가지 중생의 번뇌에 대치하는 8만 4000법문을 수록했다고 하여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른다.

고려 현종 때부터 문종 대에 걸쳐 완성한 초조대장경이 고종 19년(1232년)에 몽고군의 침입으로 불타자, 당시 집권자였던 최우 등이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16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완성한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이다.

이보다 앞서 고려 현종 때 새긴 경판을 '초조대장경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려 고종 때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버렸다. 고려 조정은 몽골과의 항쟁을 위해 다시 한 번 부처님의 힘을 빌려 외침에 대처하고 민심을 수습하고자 대장경을 새길 계획을 세운다. 대장도감을 새로이 설치하고, 고종 23년(1236)부터 38년(1251)까지 16년에 걸쳐 다시 대장경을 조성했다.

경판은 처음 강화도성 서문 밖의 대장경 판당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후에 같은 강화도의 선원사로 옮겨졌고, 그 후 조선 초기에 서울 근처의 지천사로 옮겼다가 다시 해인사로 옮겨졌다고 알려져 있다.

해인사성보박물관 관장 관암 스님은 "우리의 전통 판각기법의 복원과 전승이라는 원력으로 많은 작품을 남기며 올곧게 걸어온 이산 안준영 판각장의 장인정신이 승가의 수행정신과 맞닿아 있다"며 "많은 관람으로 국난극복의 상징인 해인사 고려대장경 조성의 호국 · 호법 · 호민의 정신과 그 가치가 오늘날 시대정신으로 공감되고, 공유되어 나라와 국민들의 삶이 더욱 빛나고 행복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막식은 4월 6일 오후 1시 해인사성보박물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전시 기간 중 다라니를 직접 소장할 수 있는 인경체험은 물론 판각 장인의 전시작품 설명과 판각시연 행사도 있을 예정이다.

제32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공모전 개최

작품접수 8월 23일~8월 25일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제32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공모전을 개최한다. 작품 접수는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에서 한다. 수상작은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라아트센터 2, 3층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은 1970년에 시작됐으며 종단의 역사 속에서 53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불교계 최고 권위의 미술대회이다. 지난 2012년부터는 매년 공모전으로 시행해오던 기존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공모전과 기획전을 격년으로 시행함으로써 불교미술대전 출신 작가의 육성뿐만 아니라 불교미술계 진흥의 방법까지도 모색하여, 보다 발전하는 불교미술의 장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제32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은 디지털아트 부문을 처음으로 신설하여 회화, 조각, 공예, 디지털아트 총 4부문이다. 디지털 아트 부문은 그래픽 이미지, 일러스트, CG 영상 및 미디어 설치 작품 등 디지털 형식이 포함된 모든 신규 창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회화는 사경(변상도 있는) 판화 가능, 캘리그라피(서화), 어반스케치 포함하여 다양한 작품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상세 공모요강 및 원서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종단소식 ▶공지사항)

응모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원서교부는 3월부터 8월 25일까지 이며, 원서배부는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심사발표는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와 개별통보한다. 시상식은 10월 25일(예정)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전통과 현대예술 콜라보로 재현한 '천도재'

'2023 땡큐붓다콘서트-천도재 니르바나'
4월 22일 오후 5시 대구 아양아트센터

문화공양주 자명 스님(영덕 기원정사 주지 · 사진)이 4월 22일(오후 5시) 대구 아양아트센터에서 '2023 땡큐붓다콘서트-천도재 니르바나'(130분, 인터미션 없음)를 공연한다.

'천도재 니르바나'는 2014년 불교계 최초로 발표된 국악뮤지컬로 여러 차례 무대에 올려진 바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땡큐붓다콘서트 역시 자명 스님이 기획한 공연으로 문화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음악원이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예불(禮佛), 시식(施食), 열반(悅槃), 회향(回向)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장마다 고(苦), 집(集), 멸(滅), 도(道)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담아낸다.



불교의 대표적인 의식인 천도재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친숙하게, 신명나고 환희롭게 표현한 이번 공연은 고혼영가의 극락왕생과 사바중생의 현생정토를 발원하고 구현하는 장대한 서원을 담고 있다고 한다. 전통 불교의식을 명상음악화했고, 국악, 무용, 현대음악이 총망라된 종합예술로서의 문화포교 콘텐츠의 획기적 전환점을 제시하는 역대급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번 공연은 전통과 현대예술의 콜라보가 빚어낼 수행이라는 불교적 가치와진리 추구의 사유적 의미, 무대예술로서의 흥미라는 3가지 요소를 충족시킨 문화포교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연의 출연진을 볼 때 더욱 공연의 기대는 커진다. 힐링멘토로 불리는 자비명상의 마가스님, 음성공양에 자명 스님, 명상음악가 태현 스님, 범음범패 범진 스님, 염불명인 서원 스님, 대법고에 고금 스님, 판소리에 서의철, 국악계의 싸이로 불리는 최재구, 타악에 윤매고동 등 각 분야의 현존 최고 출연진이 함께한다.

이번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한 자명 스님은 "이번 공연이 전무후무한 불교문화 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이번 대구 공연 이후 완성도를 보다 높여 올 가을 서울에서 공연을 개최하고 전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공연을 기필코 성사시켜 한국불교문화의 위상을 떨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넓은 세상으로 전해지게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재완 기자

선불남성합창단 제12회 정기연주회

소태산아트홀 4월 21일 오후 7시 30분

민선희 지휘자가 이끄는 선불남성합창단이 4월 21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소태산기념관 소태산아트홀에서 제1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사진〉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가수 우순실과 퓨전국악그룹 '어이야'의 초청공연과 함께 역동적이고 익살스러운 선불남성합창단만이 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선불남성합창단은 지난 2003년 서울 조계사 어린이합창단 단원의 아버지들이 참여한 '거사 찬불가 교실'이 모태가 되어 2007년 4월 창단했다.

2009년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군장병 위문공연과 크고 작은 사찰의 음성공양을 해왔다. 2007년 10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국가브랜드 공연 '네 줄기 강물이 바다로 흐르네'에 출연했으며, KBS국악관현악단, 아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서울시 오케스트라,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경기도립국악단 등과의 협연을 통해 불교계 안팎에서 꾸준히 활동해왔다. 현재 30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선불교남성합창단은 테너, 테너2, 바리톤, 베이스 영역으로 나눠진 합창단으로 대학교수, 공무원, 교사,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